

3개월간 밤 지새우며 만든 '스마트 받아쓰기' 결실 맺다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K-해커톤 최우수상 수상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이정후) 학생들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대학생 디지털 솔루션 챌린지(K-해커톤)'에서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앱센터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K-해커톤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신진 프로그램 개발자의 성장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 최종 결선에서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4학년 박도현, 반상민, 손의범, 한민웅 학생으로 구성된 램덱바스팀은 '스마트 받아쓰기'를 출품해 전국 66개 대학 126팀(519명) 중 지역 예선, 본선을 거친 치열한 경합 끝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대팀이 선보인 스마트 받아쓰기앱은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교사는 매 시험 때마다 일일이 채점을 하고 학생들의 취약점 분석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점과 취약점 분석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교사는 학생 별 취약점을 제공받아 바로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해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대학생 디지털 솔루션 챌린지(K-해커톤)'에서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타 서비스와 다르게 '필기체 인식'을 통해 보통의 받아쓰기와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 및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맞춤법 검사와 구문 유사도 검사를 이용해 자동 채점을 수행하고 채점된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시각적인 그래프를 제공한다.

모든 시험 이력이 전산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학부모 또한 시험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다.

램덱바스팀은 "이번 수상은 약 3개월간 밤을 지새우며 작품을 개발, 준비하여 이룬 값진 성과였다"며 "4년간의 대학 생활을 K-해커톤 우승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예수병원에 500만원 후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연동교회에서 28일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백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6월에 5백만원을 후원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후원이다.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담임목사는 "119년을 봉사해온 예수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동교회는 1894년 초대 다윗 선교사에 의해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세워져 현재까지 이웃사랑과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이상민 기자

고창경찰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길거리 홍보 펼쳐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고창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 주민 상대 홍보 활동을 펼쳤다.

범죄피해지원은 크게 경제적지원, 심리적지원, 법률적지원이 있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릴이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연계기관과 합동 길거리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김주신이 순경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기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장은 "범죄피해지원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단 한명도 있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포함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경찰서, 안성파출소장 황금수 경위 승진 임용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이 안성파출소장 황금수 경위가 28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

승진임용식 행사에는 무주서장의 각 과장 및 안성파출소 직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승진임용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감으로 진급한 황금수 파출소장은 올 1월부터 안성파출소장 직책을 맡아 농촌지역에 맞는 치안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는 등, 지역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나영민 서장은 "승진은 더 많은 의무와 책임도 부여하는 만큼 무주 국민들을 위해 최선에 노력과 헌신하는 파출소장이 되 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양농농협, 진안사랑장학금 300만원 기탁

한국양농농협합동조합(조합장 김용래)은 28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용래 한국양농농협합동조합장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인 인재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향후 진안군과 협력하여 양농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양농산업 육성을 위해 진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양농농협은 국내 유일 발품 전문 농협으로 양농농가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양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구매사업,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며 양농농가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 무주복지관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총 3개월) 무주군 부남면에 거주하는 경제·의료·사회적서비스·교통·이동수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우물증 위험 여성독거어르신을 10명을 발굴하여 대상자의 처한 상황과 특수성·신체·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독거노인친구 만들기 '친구어린학교'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다.

독거노인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부남면장안보건강지소를 학교와 같은 교육, 필기구와 책이 든 가방을 매고 친구와 함께 매주 수요일 문을 여는 추억의 학교에서 집단프로그램(신체·미술·인지·요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첫 회기를 시작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어르신간의 유대감형성은 물론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나누며,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변화된 모습들에서 행복감과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 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8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완산경찰서, 승진임용식 행사 가져

완산경찰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승진자 가족, 직장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임용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및 서장과 가족들의 계급장 부착, 직장 동료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완산경찰서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승진임용식에서는 박상진 경리계장, 김광수 형사 2팀장, 이호봉 삼천지구대장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강희수 완산서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책임과 사명감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임실군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속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silgu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질건고추

고춧가루